

8. 『어려운 시절』에 나타난 내재적 개혁성

영어영문학과 김 기 목
지도교수 박 정 길

본 논문은 19세기 영국 빅토리아시대의 사회적 병리현상을 다루고 있는 찰스 디킨즈의 소설 『어려운 시절』을 작가의 내재적 개혁의지와 휴머니즘 구현이란 주제로 분석해 본다. 디킨즈는 공리주의의 극단적 합리성과 비인간성을 비판함과 동시에 산업자본주의의 이기적인 경제성과 연관지어 사회의 병폐상을 섬세하게 그려내었으며 그 양상을 작중인물을 통해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작가는 그레드그라인드 가족의 도덕적 타락상과 노동자 스티븐의 비극상을 통해 왜곡된 이념의 본질과 노사간의 갈등을 비증 있게 다루어 당시 사회제도와 지배구조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 노동과 같은 현실적 사안과 결부지어 본질적 관점에서의 사회문제를 조망하고 있다. 디킨즈는 사회의 가혹성과 비인간적 조건들을 사회의 제도적 속성의 원인으로만 보지 않고 인간의 내면적 인식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진단한다. 그는 작중인물들의 도덕적 각성을 통해 그의 내적 개혁의지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그것은 생명력과 창조력을 대표하는 인물인 씨시의 상상과 감성, 그리고 곡마단의 공동체적 이미지를 통해 표면화된다. 작가는 급진적인 제도개혁보다 이들이 보인 인간다움의 가치를 통한 삶의 가능성을 희망하였으며 이후 작중인물들의 깊은 깨달음으로 마무리지음으로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인간성이 파괴되고 왜곡된 사상체계로 사회가 분열되는 어려운 시기에 인본적 가치를 통한 내적 개선의지를 구현하여 바람직한 사회통합의 길을 제시했다.